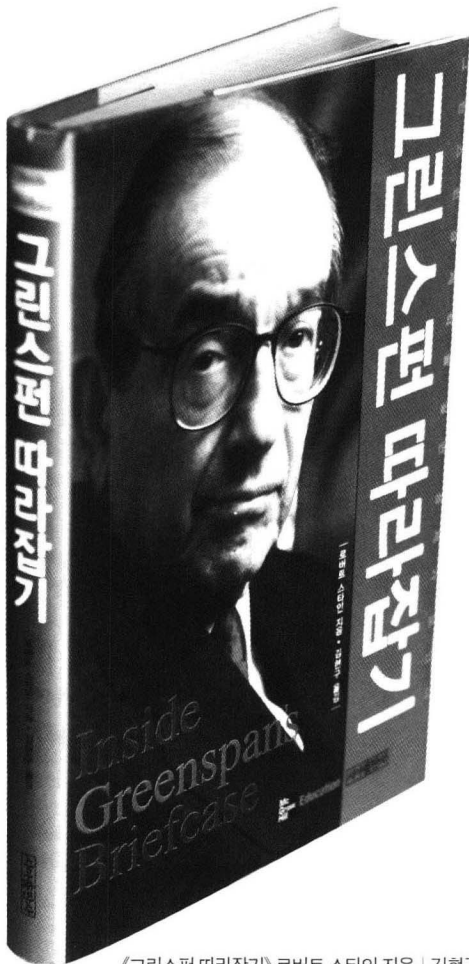


# ‘경기흐름 제대로 예측하는 법’ 좀 배워라

로버트 스타인의 《그린스펀 따라잡기》



《그린스펀 따라잡기》 로버트 스타인 지음 | 김현구 옮김 | 시아출판사 | 344쪽 | 값 15,000원

●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이 들어라》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등이 있다.

이 책의 제목은 《그린스펀 따라잡기》(원제: 'Inside Greenspan's Briefcase')이지만, 그린스펀에 관한 책은 아니다. 실제로도 그린스펀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린스펀의 인기에 기대어 책을 더 팔아보겠다는 속셈이 이 제목에 깃들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그 내용까지 알파하지는 않다. 경기흐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흔치 않은 책 중 하나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듯하다. 주식시장 등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 경제연구소와 학계의 경제전문가들 그리고 정책당국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한번쯤 읽어볼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사실, 경제에 있어서 경기흐름을 진단하는 일처럼 중요한 것도 많지는 않다. 경기흐름에 순응하면 만사가 순조롭지만, 역행하면 한 순간에 파멸적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이다. 이것은 기업에만 해당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소비자도 마찬가지이다.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경기가 호조를 지속하면 임금이 상승할 것이고 승진도 상대적으로 더 쉽게 하기도 한다. 만약 이것을 믿고, 새 집을 한 채 장만하고 차도 좋은 것으로 바꿨다고 하자. 그러다가 갑자기 경기가 후퇴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 임금은 상승하지 못할 것이고, 어쩌면 해고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집과 차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은행은 담보대출 비율을 줄이고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라고 독촉할 것이며, 자동차 할부금은 가계수지를 압박할 것이다. 되팔려고 내봐도 그 가격들은 뚝 떨어졌거나 팔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사정이 좀더 심각해지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경기흐름이 소비자에게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충분히 인식하게 해줄 것이다.

기업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면 판매가 줄어들고 수익도 줄어들 것이다. 만약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여 설비투자자와 고용을 늘렸더라면, 줄지에 부도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경기가 상승하는 것을 오랫동안 알아채지 못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다른 기업들이 경기상승에 순응하여 설비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렸다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도태당하는 길로 들어설 것이

다. 따라서 경기흐름을 올바르게 읽어내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경기흐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인들이 얼마나 될까? 현실을 보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심지어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만약 경기흐름의 진단에 민감하다면, 거의 매년 틀리기만 하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는 자기네 연구소들을 결코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경제전망을 정확하게 해내는 곳이 없는가를 열심히 찾아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은 원시적인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경기흐름에 대한 진단이나 예측도 없이 기업경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의미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주식투자자에게는 경기흐름의 진단이 더욱 중요하다. 경기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기만 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고, 경기흐름을 잘못 읽어낼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경기가 상승국면일 경우에는 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하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투자자들은 경기흐름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기진단이 주식투자의 전제조건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각종 경기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흔히 출렁이곤 한다. 이 책은 이런 점을 특히 부각시키고 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돈을 벌고, 알짜 기업의 주식을 절반 이상 보유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외국인들은 경제지표를 분석하여 우리 경제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가 밝다는 사실을 알아챈 다음에 우리 주식을 줄곧 매집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는 기관투자자조차 경기흐름을 읽어내려고 하지 않으며, 정확한 경제예측 자료를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 기관투자자들은 여전히 원시적인 주식투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책당국에게는 경기흐름의 진단이 더욱 중요하다. 국가경제의 명운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이것

을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 사실, 외환위기도 경기흐름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야 한다. 경기가 상승중이던 1993년 말에 화폐발행 잔액을 40퍼센트 이상(정확하게는 41.6퍼센트) 증가시켰고, 이것으로도 부족했던지 경기가 과열징후를 나타낸 뒤인 1995년에는 재정지출까지 40퍼센트 이상(대여금순계기준으로 42.5퍼센트) 증가시키는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국제수지 적자는 1996년 한 해에만 23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이 규모는 1990년대 초·중반의 외환보유고와 맞먹는 규모다), 이것이 외환보유고 고갈을 부른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경기가 상승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경기부양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경기상승이 과속을 일으키도록 하였고, 결국은 이것이 국가경제가 탈진하도록 하여 경기상승기간을 짧게 했다. 그 바람에 경기변동이 자주 일어났고 그 진폭도 더욱 키우곤 했다. 국민의 정부는 전형적으로 경기흐름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펼쳤고, 환란 극복이라는 찬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침이 심각해지면서 국민적 평가를 가혹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참여정부도 지금까지는 마찬가지다. 경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더욱 하강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선택함으로써 경기부진을 더욱 심화시켰다. 국민의 정부와는 다른 각도에서 경기흐름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을 선택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가계대출 비율을 갑자기 대폭 축소시킨 것이나, 신용불량자 문제를 완화시키다가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갑자기 대폭 축소시킨 것이나,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부동산투기를 너무 냉각시킨 것 등이 그것들이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올바른 것이고 꼭 이뤄져야 하는 것이었지만, 경기흐름을 살피가면서 시행했어야 했다. 경기를 결정적으로 하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책의 강도가 선택되어야 했던 것이다. 환자의 병을 고치자고 선택한 처방전이 환자의 목숨을 잃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이 책을 정책당국자에게 필독서로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을 통해서 경기흐름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